

#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을 즉각 중단하라

## 팔레스타인에 연대를!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에서 벌이는 인종 학살이 한 달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11월 16일 현재, 가자 지구 누적 사망자는 1만 1000명이 넘었습니다. 이 중 어린이만 6000명이 넘습니다. 사망자의 다수는 어린이와 여성들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특히 병원·학교·난민촌 등 민간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살던 집이 파괴되거나 전쟁을 피해 피난 온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이 이 시설들에 머물다 살해됐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군은 상태가 위중한 환자들을 이집트로 옮기던 구급 차량들을 공습해 15명이 숨지고 6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병원 등 공공 건물 내부나 그 옆에서 하마스의 근거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스라엘군 대변인 다니엘 하가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마스는 가자 지구의 학교와 모스크, 병원을 포함한 민간인 지역에 무기와 군대를 배치해 민간인의 생명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이스라엘이 병원·학교·난민촌 등에 있는 민간인을 의도적으로 공격하고 있음을 정당화하기 위한 변명입니다.

이스라엘의 잔혹한 공격은 팔레스타인 사람들뿐 아니라 가자 북부에 억류돼 있는 인질들의 목숨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알카삼 여단(하마스의 군사 조직) 대변인은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60명이 넘는 인질이 실종됐고 일부는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인질 구출에 관심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이스라엘의 목표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인들에 대한 인종 청소임을 보여 주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라!

이스라엘은 인종 학살 멈춰라!

전쟁범죄자 이스라엘을 규탄한다!

가자 지구 봉쇄 해제하라!

이스라엘 정보부가 가자 지구 주민을 이집트 시나이 반도로 이주시키는 방안을 권고하는 문서를 작성했다는 사실이 폭로됐습니다. 또, 이스라엘 문화유산부 장관 아미하이 엘리야후는 핵폭탄 투하가 “가능한 일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엘리야후의 발언은 팔레스타인인을 말살하겠다는 인종 청소 메시지입니다.

이미 이스라엘은 국제법으로도 사용이 금지된 무기인 백린탄을 민간인들에 투하하고, 신체 절단을 목적으로 하는 미사일 ‘헬파이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마스가 통제하지 않는 서안 지구에서도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1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비롯한 팔레스타인 전역에서 팔레스타인 땅의 역사적 주인인 팔레스타인인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땅을 차지하려 합니다. 1948년 건국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의 단일 민족 국가를 만들겠다는 시온주의 이념으로 팔레스타인인들을 인종 청소하면서 세워졌습니다.

명백한 인종 청소의 의도를 보이고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당장 학살을 중단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점령과 학살에 맞서 독립 운동을 벌이고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규탄 행동에도 많은 지지와 참여를 바랍니다.

11·25 팔레스타인 연대 10차 집회·행진

학교, 병원까지 무차별 공격  
**이스라엘의 지상전 확대**  
**인종 학살 규탄한다**

11월 25일(토) 오후 2시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인근 (서울 중구 무교로 32 효령빌딩)

주최: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 아랍어-한국어 통역 제공  
문의: 010-7550-2131



후원 계좌: 국민은행 694701-01-227958 (예금주 백은진)  
보내 주신 후원금은 팔레스타인 연대 집회 개최를 위해 사용됩니다.

행진 경로  
집회장→광화문역→종로2가→명동성당(명동길)  
→을지로입구역→서울광장(시정역)→집회장

### 팔레스타인에 연대하는 사람들 (재한 아랍인들과 국내 시민사회단체 36곳 연명)

강남향린교회, 건강세상네트워크, 고대 세미나 모임 체크체크, 공무원노조 강북구지부, 공무원노조 동작구지부, 공무원노조 서울본부, 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 지부' 분과동지연대회의, 기아차 화성공장 반전 평화모임(정의당 기아 화성 직장위원회, 진보당 기아 화성 현장위원회, 기아화성공장 평조합원의 목소리), 나눔문화, 노동자 연대, 노동자연대청년학생그룹, 노동자의 집, 노동자의 책, 노동해방 참세상을 위하여, 대학노조 서울대지부, 마르크스주의연구모임, 불세비키그룹, 서울서부 2030독서 모임 마르크스주의ABC, 쌍달작은도서관, 아시아의 친구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울주군 주민회,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작은책, 전교조 서 울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전국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워크지부, 전국철도노조 성북승무지부, 청소년단체 아호, KT전국민주동지 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외대 중앙동아리 왼쪽날개, 해방 세상을 향해 진군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전진 스페인어과 학생회 졸업생모임, 화성외국 인보호소방문시민모임(마중), 이상 36곳, 가나다순